

# 광주 화물연대 파업...기아차 수출 비상

### 운송료 인하 방침 반발 화물차주 108명 운행 스톱

### 대체차량 긴급 투입...조합원들 막아서며 몸싸움도

화물연대가 현대글로벌비스의 일방적 운송료 인하 방침에 반발하며 28일 총파업에 돌입, 기아차 광주공장의 수출물량 운송에 비상이 걸렸다.

기아차 광주공장도 글로벌비스 측은 대체차량을 긴급 투입해 운송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총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기아차 광주공장은 물론 지역 제조업체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 광주지부 카게리어분회(이하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기아차 광주공장 남문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하고 현대기아

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벌비스의 일방적인 운송료 인하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총파업에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운송하는 카게리어분회 소속 4개 업체의 화물차주 112명 중 108명이 참가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자 글로벌비스는 이날부터 대체차량 94대를 투입해 기아차 광주공장의 차량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대체차량을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

3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파업은 운송료 인하가 발단이 됐다. 운송료의 기준이 되는 카게리어 1대가 운송하는 기아차 및 대분을 인정하느냐와 유가연동제에 따른 비용 계산이다.

글로벌비스는 기아차 소하리공장 등 타 공장과의 형평성을 들어 화물연대에 지급하는 운송비 기준을 카게리어 1대당 기아차 5.2대로 할 것과 함께 유가연동제를 적용해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별도로 운송료 6.5% 인하를 주장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카게리어 1대당 6대를 신고 다니는 만큼 6대를 기준으로 하고, 유가연동제가 있지만 불가 인상을 고려해 6.5% 인하대신 오히려 운송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양 측은 지난 9일과 25일 1, 2차 협상을

거쳐 1회 운송에 6대 분의 비용을 지급하고, 운송료를 6.5%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비용으로 보면 카게리어 1대가 차 6대를 목표항까지 1차례 운반하는데 드는 운송료는 25만8000원(1대당 4만3000원)이다. 이를 6.5% 인하해 24만1230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안이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여부를 묻는 투표가 부결돼 파업에 이르게 됐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의 1일 생산량은 2200대(수출 1600대, 내수 600대)로 전량 화물연대 카게리어분회 소속 화물차주 112명이 운송업무를 맡고 있다. 화물연대 카게리어분회 화물차주들이 운송을 멈추면 국내외 물량 운송 차질이 불가피한 구조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28일 오전 광주시 서구 내방동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남문 앞에서 화물연대 광주지부 카게리어분회 조합원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파업에 들어갔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공사 났다 속여 인력사무소 등친 사기범

### 인건비 대납 관행 악용 1억원 가로챈 50대 구속

광양경찰은 28일 인건비 대납 관행을 악용해 신생 인력사무소를 상대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5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가짜 원청 사장과 인부를 만들어 광양지역 인력사무소 2곳으로부터 매달 수천만원씩 모두 1억원의 인건비를 받아 쟁취 혐의를 받고 있다.

인력사무소의 인건비 대납 관행은 현장에 공급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인력사무소가 우선 대납하면 공사업체가 매달 말이나 다음달에 소개비(10%)와 수수료를 붙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최근 인력사무소가 급증하면서 경정이 치열해 공사업체와 인력사무소의 인건비 대납이 관행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여수산단서 통근버스-SUV차량 충돌

### 1명 사망·8명 부상

여수산단에서 통근 버스와 SUV차량이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28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5분경 여수산단 흥국사역 교차로에서 김모(43)씨가 몰던 여수산단 한 회사의 통근 버스와 배모(여·55)씨가 몰던 SUV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A(여·55)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으며, 통근버스 운전자 김씨 등 8

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의 버스에는 아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직원 6명이 동승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직진하던 SUV 차량이 충돌하면서 통근 버스가 바로 옆 1.5m아래 도로로 빠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 광산구 고무줄 건축 행정 논란

### 단독주택 짓는 주민에 법적 의무 없는 정화조 설치 요구 민원 제기에 "업무 미숙" 시인...준공검사 앞두고 또 갈등

광주시 광산구가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주민에게 법적 의무 없는 정화조 설치를 요구했다가 논리가 막히자 이를 거둬들이는 등 고무줄 건축행정을 펼쳐 주민 원성을 사고 있다.

27일 광산구 등에 따르면 광산구 도덕동에 단독주택을 신축 중인 김모(51)씨는 지난해 4월 건축신고 과정에서 "주택을 신축하려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당 공무원에게 받았다.

주택 신축부지가 하수처리구역 밖이라서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건축주가 별도의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정의 "잘못 시인"에 따라 건축허가까지 무난히 끝날 줄 알았던 공사는 최근 준공검사 과정에서 또다시 막혀버렸다. 전체 주택 면적(81㎡) 가운데 일부(33㎡)를 사무실로 설계변경한 뒤 구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자 구청 측은 또다시 "정화조를 설치하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구청 측은 "단독주택과 함께 사무실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하거나 오수 발생량이 1일 2t 초과시에는 공공오수관 유입이 불가능하다"는 하수도법 단서 조항을 내세워 또다시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김씨는 "관련 공무원이 자신에게 원고를 부리기 위해 단서조항을 내세워 규제하고 있다"며 "환경부에 관련 문제점을 질의해 결국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에 유입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구청 측은 행정소송을 하든, 행정심판을 청구하든 민원인 뜻대로 하라는 식이다"면서 구청 측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애초 업무 미숙으로 정화조 설치를 민원인에게 요구했으나 즉각 바로잡았다"면서도 "그러나 주택과 함께 사무실까지 건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하수처리장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봐서 거듭 요구한 것이지 특정 민원인에게 불만이 있어서 요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그러나 구청 측 설명과 달리 주택 신축부지 인근에는 '삼도도립지구하수처리장'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으로, 하수도법 시행령(24조 2항)에 따라 정화조 설치 없이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점을 건축주가 지적하자 구청은 "공공하수처리장(삼도도립지구 하수처리장)의 총량이 초과됐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차 정화조 설치를 요구했다.

김씨가 "지은지 1년도 안 된 공공하수처리장의 총량이 초과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린 구청 측은 "공무원의 재량권"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건축주 김씨가 담당 공무원의 '고무질식' 건축 행정에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 측은 "주택 신축지역이 하수처리구역 안으로 별도의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 동료 폭행 치사 외국인 영장

광주경찰청은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35)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새벽 3시에 광산구 월계동의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국적의 지인 B(41)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잡힌 A씨는 그러나 "술자리 과정에서 말다툼이 일어 다툰 것은 사실이지만 동료의 죽음을 다짐은 별개로 내가 한 짓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B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 형님 행세하려던 동네 조폭, 격투기 선수 주먹 한방에 기절

○...30대 '동네 조폭' 이 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던 20대 남성에게 형님 행세를 하며 다투다 기절해 병원행.

○...부산 서부경찰은 28일 서로 주먹을 휘둘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격투기 선수 A(28)씨와 '동네 조폭' B(38)씨 등 3명을 입건,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7일 새벽 부산시 서구 한 가게 앞에서 A씨 등 2명에게 접근, '질서'라며 '형님' 대우를 요구했다가 '조폭'임을 의심하는 동생들과 시비, 주먹질을 하다 A씨의 한 방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연합뉴스

### 신축상가 원룸 매매 (전대정문)

전대 후문/후문 2분! (정문과후문사이)  
(전대정문앞 모야아파트 후문앞 코너)

**임대완료    정 남향    4층 주택**

1층 (커피숍 입점)  
2층~3층 (원룸 6개, 투룸 2개)  
4층 (주택)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 월수익 → 48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 보 1억5천 / 실투자 3억 8천)

(※ 주인직매) 010-6670-9800

### 첨단지구 8층 상가, 건물매매

(사무실 및 오피스가 건물)

□ 감정가 (분할시) → 56억  
□ 용자 → 26억 (최대 31억 가능)  
□ 보 3억 월 3,000만

매가 → 38억

1층 (상가) 120평 (정원,잔디밭 사용가능)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 - 56개  
8층 41평 (주택객사무실)  
(옥상 풀 사용가능, 정원 경치좋음)

010-7384-7800

### 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    수익성 상가 (주택)    경매교육

1. 동구 학동 (토 340평, 건 636평) (지하)    1. 북구 중흥동 (토 72평, 건 36평)  
◆ 남평주 시장 지하    ◆ 평수 최대규모    ※ 중흥 3동주인센터 부근, 2~3m 포장도로 접  
◆ (보령, 나이트클럽, 호프집 등등 가능)    감정가 1억3천8백    → 최저가 1억3천8백  
※ 대출 50%가능 (실 투자 : 3억)    감정가 17억3천    → 최저가 6억2천

2. 광산구 운남동 (토 70평, 건 186평) (근린주택)    2. 동구 신수동 (토 42평, 건 25평)  
◆ 1층 상가 (마트) 2층 주택    ※ 토지 평당 150만원    단층주택, 다용도실 약 6평 별도있음  
◆ 광주 운남동 우체국 부근 (코너자리)    감정가 6천8백만    → 최저가 6천8백만

3. 서구 뽕촌동 (토 90평, 건 364평) (숙박시설)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 1층~5층 총층 37개, 운전역 3분거리    1. 북구 연제동 (토 84평, 건 155평)  
◆ 달방 수익 약 900만 가능    ※ 1층~2층 상가, 3층 주택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5억2천  
◆ 대출 약 70%가능 (실투자 2억)    2. 동구 충장로 (토 34 평, 건 44평)    (1층 식당 2층 주택) 차선도로 접,    우리은행 광주지점 부근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4. 남구 방림동 (근린시설) (토 207평, 건 333평)    토지 추천  
삼일 아파트 단지 내, 주변 아파트단지, 코너자리    1. 광주 남구 주월동 (184평) (농지)  
감정가 9억8천    → 최저가 5억5천    ◆ 주월동 2차 현대아파트 부근 (차량접근 가능)  
◆ 전원 주택지 추천, 식당, 마트 추천    감정가 2억5천6백    → 최저가 1억8천

5. 광주 남구 주월동 (184평) (농지)    2. 서구 세하동 (189평)  
◆ 주월동 2차 현대아파트 부근 (차량접근 가능)    ◆ 세동마을 주변 위치, 주위는 주택 및 전답 흔해  
◆ 전원 주택지 추천, 식당, 마트 추천    ◆ 분건 차량 접근 가능, 3m 포장도로 접    감정가 1억9천2백    → 최저가 1억9천2백

경매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선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때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회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010-6834-4800    010-6832-9700